

東北亞 碩學·重鎮 學者 招請

忠州大學校 동아시아研究所 2008年 學際間國際學術大會

東北方 文化의 接觸과 交流

■일 자 : 2008년 9월 27일 (토)
~ 2008년 9월 28일 (일)

- 장 소 : 국립 충주대학교 인문사회관
- 주 최 : 國立 忠州大學校 동아시아研究所
- 후 원 : 國立 忠州大學校
- 협 찬 : CHINA HOUSE 出版社



國立 忠州大學校 동아시아研究所

“몽골비사”의 종합적 연구

B.Sumiyabaatar (Mongolia)

01. 비사(秘史)의 원명(原名)에 대하여

13 세기부터 전승(傳乘)되어 내려온 몽골 역사서(歷史書)를 서학계(西學界)에서 <몽골인들의 비사 秘史>라고 번역해왔으며^{*1}

*1 노어 → Секретная история Монголов, Тайная история Монголов, Сокровенное сказание Монголов, 영어 →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불어 → Histoire Secrète des Mongols 독일어 → Die Geheime Deschichte der Mongolen 체코어 → Taina Kronika Mongolu 파란어 → Taina Historia Mongolów 등등.

동학계(東學界)에서 <원조비사 元朝秘史>, <몽고비사 蒙古秘史>, <몽골비사>라고 번역해왔다. 한국학자들이 엽덕휘(葉德輝)^{*2}의

*2 엽덕휘(葉德輝)란 인명(人名)을 구라파와 몽골에서는 Yeh Teh Khui, Е.Дэхүй (예데휘) 라 읽고 씀. 한국학자들이 “심덕휘” 라 읽고 씀. 이것은 葉 字(字)가 “엽”과 “심”이란 두 가지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그 어느 하나를 옮기, 그로하고 판정(判定)할 수 있으나 비사학에서 동일개념(同一概念)이기 때문에 통일(統一)시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곤 한다.

간행본(刊行本) 서두(書頭)에 있는 忽必烈命 緝察 駕察安이란 글귀에 입각(立脚)하여 “몽골비사”로 번역하였다. 서명(書名)의 외국어 번역들에 대한 정부(正否)와 반론(反論) 제시(提示)가 무리(無理)하지만 문헌학(文獻學)의 원천강(遠天網)을 바탕 삼아 비사의 원명(原名)이 이상번역 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목(指目)하고자 한다. 즉 영락대전목록(永樂大典目錄)에 원비사(元秘史)로 기사(記寫)되어 있다.

고광기(顧廣圻 1776~1835)의 수필(1805년), 장복(張穆 1805~1849)의 중어번역(1848년)에 “조(朝)” 자(字)를 나름대로 침가(添加)하여, 원비사(元秘史)를 원조비사(元朝秘史)로 고치었다. 바로 이것이 종래 몽골 역사서(歷史書)의 이름이 원명(原名)으로부터 벌어진 시점(始點)되었다.

이제, 원명(原名)인 원비사(元秘史)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최우선, 성길사 카간(成吉思 칭기스 카간 チンギス・カーン^{*3})의 손자(孫子)

^{*3} 칸이 아님. 몽골어에서 “칸” Qan 칸“과 “카간” Qayan 카간“의 의미지 차이가 매우 엄격하고 뚜렷하다. 특히 서구리파에서 이상 두 단어의 뜻차이를 무시 (無視)하고 “Gingis Qan~ Chingis Qan” 이라고 자주 쓴다.

어린이 옛 각간(角汗)으로부터 천승된 “카간” “이 “칸” 칸“의 우에 있는, “칸”과 혼동(混同)할 수 없는 대칭호이다

홀필렬(후빌라이) 카간이 왜 자기 나라에 몽골 이름을 주지 않고 중국식 元 (Yuán) 원이란 이름을 주었을까, 홀필렬(후빌라이) 카간 곁에 수 천명의 봉골인, 수 많은 문명(文明) 몽골학자들이 있었겠는 데 그들이 다 중국 문화에 동화(同化)되어 버린 천중파(親中派)들이었는까 등등의 질문이 제기된다.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 “元 원”이란 단어에 몽골식 그 무엇이 숨지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까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소사전들에 없고 대사전들에 있음을 연기(列舉)한다 ②

중몽소사전에 *Хятаад монгол тольд* ① тэргүүн(始也), толгой(頭首), нэгдүгээр(一也, 이쯤) ② эхи, уг, үндэс, язгуур, эхний, анхны (本也 原也) ③ төгрөг(貨也) ; ④ Юан улс (元國名) ;

한국어에 玉篇 *Солонгос хас толь* ① тэргүүн, анх, эхний (始也) ② их, агуу (大也) ③ толгой (首也) ④ том (長也) ⑤ улсын нэр (國名) ⑥ үндэс (原也) ⑦ овог (姓也) ;

韓漢辭典에 *Солонгос хятаад тольд* ① тэргүүн (原也) ② энэрэнгүй, ногуулсангүй (善良) ③ ногуулсангүй хүн (善人) ④ оны эхний одор (元之 王氏) ⑤ оны цол (元號) ⑥ толгой (頭首) ⑦ хаан, эзэн (君也) ⑧ иргэн (民也) ⑨ их (人也) ⑩ ⑪ хий, хүч (氣也) ⑫ ⑬ тэнгэр (天也) ⑭ ⑮ урт (長也)... 일어 長篇에 *Япон хас тольд* ① 本也 ② 始也 ③ 一也 ④ 首也 ⑤ 長也 ⑥ 君也 ⑦ 大也 ⑧ 善也 ⑨ 天子之元子 士也 ⑩ ⑪ 元者 ⑫ ⑬ 上也 ⑭ ⑮ 天也 ⑯ 氣也 ⑰ 民也 ⑱ 時間・單位 ⑲ ⑳ 寶 ⑳ 誌 ⑳ 年號 ⑳ 朝代名 ⑳ ⑳ 原也 ⑳ ⑳ 玄 (通文) 帝祖仁皇帝(康熙帝)廟諱曰玄憲...元代, 之 ⑳ ⑳ 百六道之一 ⑳ ⑳ 外 ⑳ ⑳ 貨幣・單位... (973-974pp),

中語大辭典에 *Хятаад хэлний их тольд* ① 始也 端也 ② 首也 頭也 ③ 本也 原也 ④ 一也 ⑤ 長也 首長也 ⑥ 君也 ⑦ 正嫡也 ⑧ 大也 ⑨ 善也 ⑩ 美也 ⑪ ⑫ 上也 ⑬ ⑭ 天也 ⑮ ⑯ 寶也 ⑰ ⑱ 天地之大德 氣也 ⑲ ⑳ 百姓 ⑳ 時間單位 ⑳ ⑳ 誌也 ⑳ ⑳ 年號 ⑳ ⑳ 朝代名 ⑳ ⑳ 原也 ⑳ ⑳ 玄 (通文) 清聖祖諸玄憲玄用元代之 ⑳ ⑳ 百六道之一 ⑳ ⑳ 姓 ⑳ ⑳ 貨幣名... (318-319pp),

渤海 手稿 284-페이지에 *Үгийн далай* ① 始也 ② 長也 首也 ③ 人也 ④ 善也 ⑤ 朝代名 ⑥ 通原 通原 ⑦ 通玄 滿時... 改名爲元 ... 등등이다

이와 같이 元 원(Yuán)을 국명으로 정할 때

- 몽골인들의 마음에 불합(不合) 뜻이 없고,
 -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子子孫孫)의 몽골인들이 좋아하는, 전통적으로 대대(代代)의 나라 이름에 들어 가는, 이를테면 “Чингисийн хөх Монгол 청색몽골, 하늘색 몽골”의 한 요소로서의 “청색(青色), 하늘색” 뜻이 元 원(Yuán) 자(字)의 내포(內包) 내용으로 되고 있고,
 - 또 차례의 첫째, 집간(十干)의 첫째가 “Хөх Хөх 紫 甲”이란 사실,
 - 이상 사전들에서의 元通玄 (한 xuán),
 - ① 玄 (通玄) 漢聖祖諱玄嘗玄川元代之
 - ② (元) 玄 (通玄) 聖祖仁皇帝(康煥帝)廟諱曰玄嘗一玄川元代之
 - ③ 通玄 淸時... 故玄爲元 등등의 해석,
 - 또 몽골, 중국, 한국 천자문(千字文) 해석(解釋)을 필자가 제시하는 의견해명(解明)의 거증(舉證)로 열거(列舉)하면 다음과 같다.
 - 중국, 한국 천자문 해석(解釋)에 “天地玄黃 천지현황”이란 기록(記錄)이 있으며 몽골 천자문(千字文) 해석(解釋)에는 오히려 “天地元黃 천지원황”이란 기사(記寫)가 뚜렷이 존재한다.
- 그러면 “몽골비사”의 원명(原名)의 한국어 번역이 “현비사(玄秘史) 청비사(靑秘史)”로 될 것이다.

02. “몽골비사”의 종합적 연구라면 역사학, 언어학(음성론, 어휘론, 형태론, 문장론, 인명론, 지명론 등등) 민속학, 문화학, 원천학(源泉學)적 고찰(考察)을 뜻하며 내용이 넓고 깊고,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의 인생(人生)은 키녕, 여러 나라 학자분들이 자기 수년간의 고달픈 노력을 바칠 정도이다. 오늘 온 누리 학자들에 의하여 “몽골비사연구”란 세계적 정신문화 업적(精神文化業績)이 쌓아졌다. 그중 한국학자들의 “몽골비사” 학문연구 공덕(功德)이 높이 평가받고 있음을 특별히 지적(指摘)하고자 한다.³⁴

³⁴ 필자소인의 다음과 같은 저서가 있다.

- “몽골비사” (한자원본, 한글, 컴퓨터 입력 코드, 로마 및 몽골어온전
문자 전사, 1990년, 960 페이지)

- “몽골비사의 형태론적 연구” (蒙古語彙, 1997년, 3144 페이지)

- “성길사 카간(成吉思 카간 ᠰᠩᠭᠢᠰ ᶚᠠᠭᠠᠨ)의 혈통계보
(血統系譜) (2002년, 720 페이지)
- “최초 몽골위옹진자로 전사한 몽골비사”(최기호 공저, 서울, 2005년, 349 페이지)
- “몽골비사”(것 몽골어 번역 원문, 2005년, 129 페이지)
- “몽골비사사전”(2008년, 920 페이지)

03. 원명(原名)이 “현비사(玄秘史), 청비사(青秘史)”인 “몽골비사”와 한국과의 관계문제는 최소 다음과 같은 영역(領域)을 총망라(網羅) 한다.

1) 한국학자들의 “몽골비사” 연구 및 역주(譯註) 업적(業績)
(이번에 생략)

2) “몽골비사” 성서(成書)년대와 한국

3) “몽골비사”와 한국국명(韓國 國名)의 몽골 이름이다.

이상 두 가지 항목(2,3)에 대하여 “몽골비사”(현비사 玄秘史, 청비사 青秘史) 제 274 절 15-17 행에 이르기를

원문 ⇨ 兀_古里答_答主_主兒扯惕_兒莎(郎)_郎舍思途_舍兒_兒阿牙刺_三
을_爾리답_答주_主아차취_兒사(랑)_郎합_合사도_舍아_兒아아랄_爾삼

札刺亦_也兒台_台申_申兒赤因_兒格貝格_貝也速迭_速兒_兒申_申兒赤宜_宜
찰랄역_也아태_台활_活아적인_兒격지각_貝야속질_速아_兒중활_{中活}아적의_兒
아아랄_爾랄_爾
아아랄올_爾파_父

석역(直譯)⇨ “이전에 여진, 사(랑)_郎합사[고려]에 원정했던 찰랄역_也아태_台
활_活아적(찰라이르티아 코르치)의 후원으로 야속질_速아_兒
활_活아적(에수데르 코르치)을 출정시켰다”.

바로 이 기록 때문에 “몽골비사”의 성서(成書)년대가 12년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莎(郎)_郎舍思_舍兒_兒사(랑)_郎합_合사”를 모모자로 전사하면 So(lang)gas
이 되며 이것이 당시의 고려, 현대의 한국의 몽골 이름이다.

4) “몽골비사”와 한국어

평자가 바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한국어에 보존된 <몽골비사> 이휘 및
문법요조”란 제목 밑에 색을 쓰고 있으며 이번에 “赤出阿”란 단어에 대한

율성·분법·이휘론·이원학적 분석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赤出阿”란 단어가 <몽골비사>의 제 76-9, 77-11, 78-13, 125-5 절에 아래와 같은 문구 속에 4 번째 나온다.

[五員우진 이미님, 別帖^看見 빅데로, 成吉思汗^中^西^蒙 칭기스汗^{突厥} 칭기스汗^汗, 칭기스汗^汗의 말을]

蘇濃額敵不遠赤出阿瓦該...

실온액친 부속 적줄아 올해 ...

and the King would, as before.

한국어 적어 ↪ [우리들은 그립자 땅에는 친구가 없고]

"꼬리 끝에는 채찍이 있다"

“赤出阿”的 로마자 전사는 čiču'a, 몽골 위울진(偉兀眞) 문자와 키릴

문자전사는 “チチウガ, チチウガ”이며 중세중이(中語)

번역이 “搬了 편자”이다.

현대몽골어에 이상과 똑 같은 의미와 형태를 갖는 단어가 없다.

그러나 한국어에 보존된 것으로 짜집니다.

한국어 빈역이 "채색"이며 바로 이것이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우리 연구대상으로 되고 있다.

한국어에 “체꺽, 체째기, 체쭉, 체쪽”이란 4 개 명사형태가 있으며 “체치다, 체티다” 등 동사형태를 동반(同伴)한다. 이처럼 본 단어가 “몽골
비사”와 한국어에서 같은 의미와 음운구성을 갖고 있다. 또 국제학술용어
(學術用語)가 ZIZANIA(지자니아)이며, 노어 이름이 “Цицания”(치차니아) 인
데 의미와 음운구성이 몽골과 한국형태의 영역(領域)내에 있음이 주목된
다. 골간을 이루고 있는 자음 음운 구성을

물갈이서 ⇒ 자음“ㅊ” 모음“ㅣ” 자음“ㅊ” 모음“ㅏ” 자음“ㄱ” 모음“ㅓ”

한국어 → 자음 “ㅊ” “모음”] “자음 “ㅋ” “모음”] “자음 “ㄱ” “

卷之三

용어: 자음“스” “모음” | “자음“스” “모음” | “자음“느” “모음” | “모음” |
동아리: 자음“츠” “모음” | “자음“츠” “모음” | “자음“느” “모음” | “모음” |
이다.

필자가 이것을 알타이 어족(語族)의 공동단어, 이웃 살아왔던 풍물과
한국 선조들의 옛 관계를 과시(謁示)하는 인어적 요소의 하나로 간주한
다.

여원으로 따지면, 동몽골과 한국지역 하천 소택에 자생하는, 간이
직립하고 원주형, 상부에는 자성 소수가 가늘고 길게 빠고 호영은 짙진
이고 뱀이 떠고 깨끼한 다년생 초본인 “줄풀”으로부터 나온 단어가 아닐

까 란 의견을 제기한다.

동몽골에서 이상 초본의 하부를 말먹이로, 줄기를 가축 물이 기구로 사용했었다 (그림 참조)

